



건강증진과 함께 하는 국민건강검진서비스의 시대입니다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회장 김 준 연

회원기관장님과 검진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

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16년은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미스런 일들로 온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속성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김없이 새해는 밝아왔고 우리는 또다시 한해의 사업을 계획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사업은 차츰 발전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난해에는 자궁암검진 유병률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검진대상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

르스 관련 검진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실시하는 등 검진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토요일 검진 시 일·공휴일과 동일하게 건강검진 검진료에 30%를 가산 적용하게 되고, 위암 혹은 대장암 검진 시 내시경 소독세척비 산정 그리고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 C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C형간염검사를 선별 실시하는 등 수검자 편익을 위한 검진항목과 방법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 결핵 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9월에는 국가건강검진 5개년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주로 전업주부라 할 수 있는 40세 미만의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등 약 400여만 명에게 일반건강검진(맞춤형)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건강검진서비스 활동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 혹은 높은 유병률을 점하고 있는 암, 뇌심혈관계질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요통, 비만 및 스트레스 등 만성질환과 신체적 장애의 예방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활동에도 힘써야겠습니다. 즉, 우리들은 건강증진과 연계된 국민건강검진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이제 수검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도 회원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원과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의 회원기관 임직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회는 금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협회의 운영임원과 사무국에서는 ‘협의회 창립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회원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